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6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정일 과장(2110-5680), 노승구 사무관(2110-5684)		

반도체 설계 전문기업, "일할 맛 납니다"

– 중소 팹리스 재직 연구원 24명, 모교 찾아 후배들 취업 적극 권유 –

◇ "한정된 업무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연구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까봐 대기업 대신 이 곳을 택했는데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요." (I&C테크놀로지, C연구원)

◇ "팹리스는 입사하자마자 금방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선배들의 1:1 첨삭지도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에요" (실리콘웍스, K연구원)

◇ "아버지 같은 사장님, 형님 같은 팀장님 등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." (실리콘웍스, L연구원)

□ 고급 인재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팹리스 업계가 적극적인 인력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다.

○ 지식경제부와 반도체협회는 국내 상위 팹리스 업계 7개사에 근무 중인 1~4년차 연구원 24명이 각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을 설명하는 '팹리스 홈커밍데이(Homecoming day)' 행사가 6.27일(수)부터 7.11일(수)까지 여섯 차례 열린다고 밝혔다.

○ 이 행사를 통해 팹리스 업체에 재직 중인 선배들은 석·박사과정 후배들과 함께 '최근 시스템반도체 업황과 인력수급 동향'에 대해 토론하고, 인근 생맥주집에서 '중소·벤처 기업의 매력과 가치' 등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.

□ 금번 행사에는 실리콘웍스, 실리콘마이터스, 텔레칩스 등 국내 최상위 팹리스 7개사가 참여하고, 광운대·서울시립대(수도권), KAIST·충북대(중부권), 경북대(영남권), 전북대(호남권) 등 전국 6개 대학이 참여한다.

* 6.27(수) 광운대, 6.28(목) 충북대, 7.4(수) 서울시립대, 7.5(목) KAIST, 7.10(화) 전북대, 7.11(수) 경북대

□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행사가 "시스템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통해, 우수 인력들이 맹목적인 대기업 선호 추세를 벗어나 중소 팹리스 기업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"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,

○ 향후,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2학기가 개강하는 9월 이후 기타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중소 팹리스 업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고급 인력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9개 대학에 설치된 '반도체설계교육센터(IDEC)'을 통해 석·박사 출신 420명이 배출되었으나,

○ 이 중 197명(소요* : 250명)이 대기업에 취업**하고, 68명(소요* : 385명)만이 중소·벤처 기업에 취업**하는 등 팹리스 업계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* 석·박사급 반도체 설계인력 소요 전망 (반도체협회, `11.3월)

** `11년 석·박사급 반도체 설계인력 진로 현황 (IDEC, '11.10월)

< 동 행사 관련 취재 지원 안내 >

◇ 일시 및 장소 : **'12.6.27(수) 17시, 광운대학교**

◇ 취재 가능 내용

○ 반도체 설계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현장 경험 발표

○ 반도체 전공 석·박사생들의 향후 진로 관련 고민 등

○ 현장에서 느끼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의 장·단점 등

◇ 취재 지원

○ **교통편 제공** 및 관련 행사(뒤풀이 포함) 참석

* 교통편 : **(과천청사→광운대) 오후 3시, (광운대→과천청사) 오후 8시**